

# 침구경락 음양론의 새로운 발전, 기능적 뇌 척주요법 FCST

인창식<sup>1</sup> · 고흥균<sup>2</sup> · 이영진<sup>3</sup> · 전세일<sup>4</sup> · 이영준<sup>5</sup>

<sup>1</sup>포천중문의과대학 차바이오메디컬센터 침구과,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sup>3</sup>포천중문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sup>4</sup>포천중문의과대학 대체의학대학원, <sup>5</sup>이영준 한의원

## 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 a New Physiologic Therapeutics Developed as Meridian Yin-Yang Balance Approach

Chang-Shik Yin<sup>1</sup>, Hyeong-Gyun Koh<sup>2</sup>, Young-Jin Lee<sup>3</sup>, Sae-il Chun<sup>4</sup>, Young-Jun Lee<sup>5</sup>

Dept. of <sup>1</sup>Acupuncture, CHA Biomedical Center, <sup>3</sup>Family Medicine, and <sup>4</sup>Graduate School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 <sup>2</sup>Dept. of Acupunctur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sup>5</sup>Lee Young Jun Han Medical Clinic

### Abstract

**Objectives :** 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 is a new physiologic therapeutics developed in Korea as a meridian yinyang balance approach. The theory of yinyang balance has been at the core of health enhancement approach of meridian and acupuncture medicine ever since its start.

**Methods :** Introductory overview of FCST is presented in relation with meridian yinyang balance theory.

**Results :** As th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and related tissues have direct interconnection with brainstem proprioceptive or motor systems and the face is where all the meridians converge, FCST applies a fine adjustment of the posture of TMJ as a treatment tool for neurologic conditions or meridian imbalances.

**Conclusions :** Highly sophisticated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s to adjust various subset aspects of yinyang balance are developed within FCST, which is supposed to be one of major contributions to natural healing.

**Key words :** 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 Meridian, Yinyang Balance, Temporomandibular Joint, TMJ

## 1. 서 론

한의학의 기초이론은 음양오행(陰陽五行), 정기신혈(精氣神血), 장부경락(臟腑經絡), 병인병리(病因病理)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임상학에는

변증치법(辨證治法), 침구본초(鍼灸本草), 임상각과학(臨床各科學) 등이 있다. 특히 음양론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고대 자연관으로, 한의학에서 생명체를 관찰하는 방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운육기의 체계에 따라 모든 생리활동을 설명하고 병리전개를 해석하며 변증과 치료효능을 분석하고 있다<sup>1)</sup>.

· 교신저자: 이영준 충남 천안시 두정동 1616 용암빌딩 5층,  
Tel. 041-552-0056, E-mail: acuyin@shinbiro.com  
· 투고: 2005/11/04 · 수정: 2005/12/13 · 채택: 2005/12/19

침구경락은 한의학의 생리병리관과 임상치료학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14정경(正經)과 361경혈(經穴)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체계와 혈위체계는 이미 2000여 년 전의 『명당공혈침구치요(明堂孔穴鍼灸治要)』에서 완전한 형태로 제시될 정도로 오랜 임상경험과 이론적 연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2)</sup>. 침구경락 이론의 형성과 발전과정도 단순한 경험의 누적에 따른 이론의 형성이라기보다는 음양론에 입각한 관찰과 이론형성, 그에 따른 임상의학의 재검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적뇌척주요법(functional cerebrospinal therapy, FCST)은 이영준의 10여년의 임상연구결과 창안된 새로운 생리적 치료기법(physiologic therapeutics)이다. 턱관절(temporomandibular joint)을 매체로 하여 음양균형의 관점에서 인체의 상태를 분석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며 치료기법을 구사한다. 기존의 여러 수기요법에 한의학의 지혜를 접목시켜 태어난 FCST는 턱관절에 대한 작지만 정교한 자극을 통해 인체의 생리적 균형을 유도하게 된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FCST에 내재되어 있는 음양론을 침구경락 음양론의 형성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고찰함으로써 음양균형론적 임상의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룬 FCST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 론

### 2.1. 침구경락 이론의 음양관

음양학설이라는 고대철학에서는 음양이 모든 자연현상의 발생발전변화의 근원이며 음양의 대립통일성식을 우주의 기본규율로 보며, 이것이 의학에 침투하여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대립통일, 평형협조가 인체장부생리기능의 정상활동

여부를 나타내는 근본지표로 활용되고 있다<sup>4)</sup>.

「소문(素問)·음양응상대론편(陰陽應象大論篇)」에서는 음양이 만물변화의 핵심요인이며 삶과 죽음과 치료의 관건이라 한 바 있고(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소문·금궤진언론편(金匱眞言論篇)」에서는 사람의 내외, 복부와 배부, 장과 부를 음양으로 설명했으며(夫言人之陰陽, 則外爲陽, 內爲陰. 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言人身之臟腑中陰陽, 則臟者爲陰, 腑者爲陽), 「소문·음양응상대론편」에서는 상하, 좌우, 내외와 천지, 기혈, 수화 등 음양의 여러 세부 속성을 설명했다(天地者, 萬物之上下也. 陰陽者, 血氣之男女也. 左右者, 陰陽之道路也. 水火者, 陰陽之徵兆也. 陰陽者, 萬物之能始也. 故曰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sup>5)</sup>.

침구경락학설은 인체의 생리병리 현상을 해석하여 임상의 바탕으로 삼는 기초이론의 하나로, 한의학 이론체계의 중요 구성요소이면서 침구학 이론의 핵심이다. 경락 이론의 골자는 첫째 경락을 통해 인체 각 조직기관이 유기적인 정체(整體)로 연결되며 둘째 기혈(氣血)이 운행되어 인체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인체 각 부위의 기능이 협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균형을 갖추게 해 준다는 것이다<sup>6)</sup>.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유기적 정체로 보며, 이 유기적 정체는 오장(五臟)을 중심에 두고 각 조직기관이 경락계통에 의해 연계됨으로써 경락계통에 따른 기능계통으로 묶여 소통되고 각각의 기능활동의 음양균형을 유지하게 된다고 본다<sup>4)</sup>. 「영추(靈樞)·경별(經別)」에서는 경맥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관건이며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也, 蠱之所易, 上之所難也)<sup>7)</sup>. 침구학은 혈위와 경

## 침구경락 음양론의 새로운 발전, 기능적 뇌 척주요법 FCST

락에 대한 자극을 통해 경락계통의 음양균형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얻기 위한 치료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초 이론이 되는 경락학설에서는 인체의 조직기관이 다양해도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정체를 이루고 있고 인체의 건강과 활력의 핵심은 경락 계통을 통해 음양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락이론의 형성과정에서 삼음삼양(三陰三陽)의 용어와 개념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삼음삼양의 명칭이 손목 발목 주변의 특정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다가 점차 일정 노선을 가지는 경맥의 명칭으로 발전해 가고, 그 지점에서의 진찰소견과 치료대상 병증은 맥진학과 해당 경맥의 주치병증으로 발전해 갔다<sup>8-9)</sup>.

경락계통은 음경(陰經)과 양경(陽經)으로 크게 구분되며 음경은 강령이 되는 임맥(任脈) 외에 결음(厥陰), 소음(少陰), 태음(太陰) 등, 양경은 강령이 되는 독맥(督脈)외에 소양(少陽), 양명(陽明), 태양(太陽) 등 여러 측면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삼음삼양 경맥은 다시 수족(手足) 경맥으로 세분화된다. 각 경맥 내의 혈위에도 다시 음양의 성쇠에 따른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수혈(五腧穴)이 위치해 있다. 즉 경락계통이 인체의 전체적인 음양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분화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FCST의 독특한 개념, 검사법, 치료법은 아직 문헌으로 정리되어 학회에 보고된 바 없으나 2004년 이래 임상강좌를 통해 우수한 임상증례가 알려져 왔고<sup>10)</sup> 이영준이 뇌와 척추 및 악관절의 삼각관계를 고려해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제언한 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그 개요를 정리할 수 있다. 김 등이<sup>11)</sup> 일부 언급한 것은 있으나 FCST 관련내용의 범위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오독의 소지가 있었다.

## 2.2. FCST의 개요

턱관절은 인체의 전신적 음양균형을 평가하고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며, 기능적뇌척주관절(functional cerebrospinal joint, FCSJ)이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다. 제2경추 치아돌기(odontoid process)는 두개골을 지지하고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는 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턱관절은 제2경추 치아돌기를 축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두개천골요법(craniosacral therapy, CST), 카이로프랙틱 등에서는 두개골, 경막, 척추는 뇌척수의 신경계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FCST의 가설에서는 턱관절은 제2경추를 통하여 뇌척주신경계의 전신적인 음양 균형을 반영하고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와 도구로서 설정된다.

인체의 음양 불균형은 턱관절 자체에 관한 4가지 불균형과 척추자세의 3가지 요소의 변화 등 총 7가지 측면을 통해 평가한다. 턱관절 자체에 관한 4가지 불균형은 좌우수평, 좌우수직, 전후, 상하 불균형을 말하며, 은박종이를 접은 것을 겹쳐 쌓아 교합측정지로 활용하여 상악과 하악의 구치 사이에 물렸을 때 하악의 위치변수에 대한 표현이다. 좌우수평이란 편측 턱관절의 상하악 사이에서 교합측정지 높이가 변화되는 변수를 말하고, 좌우수직이란 하악의 좌우방향 이동변수를 말한다. 전후, 상하는 각각 하악의 전후방향, 상하방향 이동변수를 말한다. 척추자세의 3가지 요소의 변화란 두면체간부를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머리와 경추의 자세, 흉추 부위의 자세, 요추와 그 이하 부위의 자세 등의 이상적인 균형 여부가 인체의 음양 불균형을 반영하고 조절하며 이것이 턱관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

는 것을 말한다.

턱관절을 통해 관찰하는 인체의 음양균형은 근육검사, 경추회전검사, 흉쇄유돌근(stenocleidomastoid muscle, SCM; 목빗근) 긴장검사 등을 활용해 검사한다. 근육검사는 응용근신경학(applied kinesiology, AK)의 근육검사와 치료적 접촉검사<sup>12)</sup>, 접촉반사분석(contact reflex analysis, CRA)의 근육검사를 변형발전시킨 방법을 활용해서 7가지 불균형을 평가한다. 피부접촉점은 ST7(下關), GV26(水溝), CV24(承漿), GV15(瘡門), GV16(風府), GV20(百會), EX-HN3(印堂), CV17(膻中), CV5(石門), CV6(氣海), CV4(關元) 등을 주로 활용한다. 경추회전검사에서는 3가지 기법으로 경추 회전의 수동적 운동범위(passive range of motion)를 평가한다. SCM 긴장검사는 흉쇄유돌근을 촉진하여 그 긴장도의 변화를 통해 턱관절의 불균형을 평가한다.

교합측정지를 겹쳐 상악과 하악 사이에 물게 하거나 두면체간의 자세를 바꾸면서 위의 검사법을 통해 턱관절 자체에 관한 4가지 요소, 두면체간의 자세에 관한 3가지 요소의 불균형 요인이 이상적으로 회복되는 하악의 위치를 찾은 후 하악을 그 위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음양균형장치를 만들어 착용시킨다. 음양균형장치는 FCST에서 인체의 음양균형 회복을 위해 활용하는 장치이다. 정교한 기법을 구사하여 vinyl polysilane impression material인 Exafine Putty Type (GC corporation, Tokyo, Japan)을 이용해 만든다. 턱관절을 통한 음양균형 검사의 소견과 증상의 변화를 참고하여 인체의 음양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하악의 위치를 유지시키는 음양균형장치를 만들어 착용시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인체가 음양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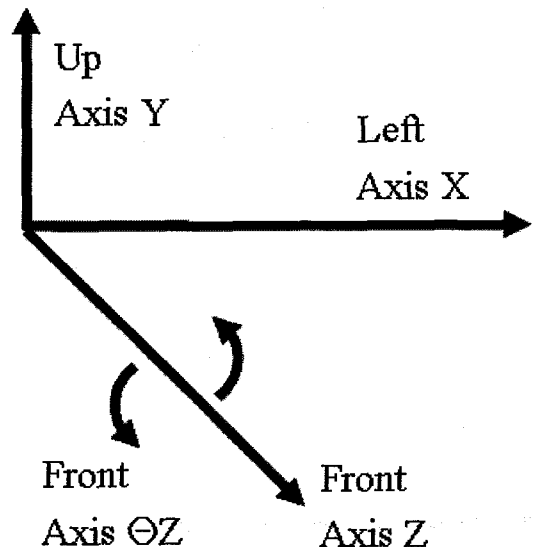
FCST에서는 인체의 음양불균형을 턱관절을

도구로 하여 파악할 수 있고 턱관절에 대한 정교한 자극을 통해 인체의 음양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체의 음양에 편성편쇠(偏盛偏衰)가 있을 경우 병증발현과 함께 혹은 병증발현이 없이도 근육검사, 경추회전검사, SCM 긴장검사에서 불균형과 이상이 관찰되며 이 때 FCST에서 말하는 7가지 변수 즉 턱관절의 자세를 음양의 여러 축 방향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인체의 음양 편성편쇠 소견이 즉시 없어지게 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체의 음양균형이 회복됨으로써 치료와 건강증진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 2.3. FCST의 음양관

음양은 한의학에서 인체의 조직구조를 이해하고 생리기능과 병리변화를 해석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강령이며 치료법을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sup>1)</sup> FCST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FCST에서 턱관절의 자세는 7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해주는데, 7가지 변수는 턱관절

Figure 1. Right-handed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자체에 대한 4가지 음양균형과 전신 자세에서 반영되는 3가지 음양균형을 말한다. 턱관절 자체에 표현되는 4가지 요소를 하악골 전면 정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손 직각좌표체계(right-handed orthogonal coordinate system)<sup>13)</sup>로 표현한다면 좌우수평은  $+θ Z$ ,  $-θ Z$ ; 좌우수직은  $+X$ ,  $-X$ ; 상하는  $+Y$ ,  $-Y$ ; 전후는  $+Z$ ,  $-Z$  방향의 위치변화를 말한다(Figure 1). 각각 상대적인 두 방향 요소와 그 방향으로의 변화된 양으로 표현된다. 이 중 좌우수평 즉  $+θ Z$ ,  $-θ Z$ 의 균형이 가장 핵심적이고도 관건인 균형이 된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음양 요인을 변화시켜 자극했을 때의 인체반응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척추의 자세를 중심으로 한 두면체간의 자세에 관한 3가지 요소는 상초, 중초, 하초의 요인의 자세변화가 인체 음양의 균형에 영향을 끼쳐서 그 결과가 턱관절에 반영된 것이다.

본래 장상학(臟象學)은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관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뇌의 기능도 오장에 귀속시켰다. 특히 심장신(心臟神), 간주소설(肝主疏泄), 신장정(腎藏精)하며 뇌는 수해(髓海)이므로 뇌는 심간신(心肝腎)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전신의 각 조직기관과 기능발현은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계통으로 분류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설정하였고 그에 입각하여 생리병리, 진단치료 이론을 전개했다.

전신을 장상학에서 말하는 각 경락계통으로 나누어 인체의 음양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치료적 자극을 주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이라면, FCST에서는 전신 자체를 장부경락계통으로 나누어 관찰하기 이전의 하나의 통합된 유기적 정체로 보며 전신상태가 반영되고 전신적 조절자극을 가할 수 있는 뇌에 소통하는 통로로서 턱관절, 경추관절과 주변조직의 자세조정을 통

한 뇌간자극을 활용하고 있다. FCST에서 진찰과 치료의 도구로 삼는 턱관절과 경추관절 그리고 그 주변 연부조직은 고유감각신호와 운동신호가 모두 뇌줄기(腦幹, brainstem)와 직접적으로 원심성, 구심성 신경연결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 즉 턱관절, 경추관절과 주변조직의 자세를 조절해 주는 자극은 뇌간 신경세포에 직접 자극을 주는 방법이 된다. 안면 부위는 인체의 모든 경락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영추·사기 장부병형(邪氣藏府病形)」)<sup>7)</sup>. 턱관절과 주변조직은 뇌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인체의 모든 경락이 모여드는 곳이며, 여러 방향으로 음양의 속성을 조금씩 바꾸어 자극을 주면서 인체의 반응을 관찰하기에 유용한 구조물이다.

FCST에서는 음양의 균형개념에 입각하여 턱관절의 자세를 조정하여 뇌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경락에 대해 자극을 가한다. 여러 측면에서의 음양속성을 정교하게 조절함으로써 인체의 음양균형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자극방향과 양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과 인체의 존재는 음양의 끝없는 대립통일 변화과정이고 인체의 음양평형 조절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음양평형이 언제든지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가능하면 빨리 다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결 론

이상과 같이 FCST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침구경락학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음양론적 임상의학이 FCST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턱관절과 주변 조직은 뇌와 운동감각신경이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인체의 모든 경락이 모여드는 곳이며 여러 측면의 음양요소를 바꾸어가며

자극을 주고 인체의 반응을 관찰하기 용이한 곳이다. 기존의 침구경락학이 장부경락으로 세분하여 인체의 음양균형을 관찰하고 치료했다면 FCST는 전신의 통합적인 음양균형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음양속성을 활용하여 뇌와 전신경락에 통합적인 자극을 가하는 치료법이며, 음양론적 임상의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1.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 성보사. 1990 : 30-2, 50-3.
2. 고희균, 인창식.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10-35.
3. 이영준. 잘난척 예쁜척. 서울 : 빵봉투. 2004 : 5-6, 11-2.
4. 박찬국. 장상학. 서울 : 성보사. 1992 : 22, 204.
5.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20, 23-4.
6.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 : 집문당. 1997 : 65-6.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37, 97.
8. 인창식, 강미경, 이상훈, 고희균. 돈황의서에 나타난 삼음삼양 혈위에 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4) : 42-8.
9. 인창식, 고희균. 경락과 혈위란 무엇인가? 의과학. 2005 ; 14(2) : 135-48.
10. 기능적뇌척주요법. 포천중문외과대학교 전문과정 공지사항. [cited 2005 Nov 1]. Available from: URL: <http://www.cha.ac.kr/>
11. 김완영, 강영성. 뇌와 원신을 대상으로 하는 추나의학에 대한 소고. 대한추나의학회지. 2004 ; 5(1) : 31-66.
12. 데이비드 윌터. 응용근신경학. 서울 : 대성의학사. 2003 : 65-8, 398-404.
13. Plaugher G. Textbook of Clinical Chiropractic (한국어판). 서울 : 푸른의학. 1998 : 34-5.